

공공도서관의 온라인콘텐츠 현황분석 및 관리 활성화 연구*

The Current State Analysis and Activation Plan on Management of Online Contents Produced in Public Library

최재훈 (Jaehun Choi)**

신은주 (Eunju Shin)***

서은경 (Eun-Gyoung Seo)****

초 록

공공도서관은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오프라인 서비스의 대체재로 많은 양의 온라인콘텐츠를 생산하고 이용자에게 제공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포스트 팬데믹 시기인 지금에도 공공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온라인콘텐츠의 전반적 관리현황을 분석하고, 관리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적 토대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서울·경기도 지역의 공공도서관 중 305개 도서관의 기관대표와 담당자에게 설문하여 온라인콘텐츠 생성, 서비스, 보존까지의 전반적 관리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였고, 온라인콘텐츠 생산 및 관리에 대한 사서들의 인식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팬데믹 이후에도 공공도서관은 홍보 및 전달의 효율성을 가진 온라인콘텐츠를 생산하고 도서관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를 통하여 활발히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사서들은 공공도서관에서 생산된 온라인콘텐츠를 '도서관 자원으로 가치'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앞으로도 더 많이 생산될 것임을 예측하였지만, 전문가적 역량의 부재와 업무부담으로 생산과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서들은 주요 온라인콘텐츠 관리가 이루어져야 함을 인지하고 있었다. 온라인콘텐츠는 공공도서관 서비스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끌고 있고, 온라인콘텐츠의 활성화를 위한 관심과 노력이 공공도서관의 선택이 아닌 필수인 것이다.

ABSTRACT

During the COVID-19 period, public libraries produced and provided a variety of online contents to users as an alternative to offline servic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overall management of online contents in public libraries in the post COVID-19 period and to provide a methodological basis for improving online contents management. This study surveyed the overall current state of online content management in 305 public libraries in terms of production, services, and preservation. We also analyzed the librarian's perception of the online contents management proces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even after the COVID-19 period, public libraries are efficiently producing and providing online contents and are actively providing this through the library website and social media. In addition, librarians recognized that online contents produced by public libraries are valuable as library resources and predicted that the online content would be produced more in the future. Also, they faced difficulties in production and management due to a lack of professional capabilities and extra workload, but they have recognized the high need for online contents management. Online contents is leading a paradigm shift in public library services. Therefore, attention and effort to activate online content is no longer an option but a necessity.

키워드: 온라인콘텐츠, 온라인콘텐츠 생산, 온라인콘텐츠 관리, 공공도서관, 현황분석

online contents, online contents production, online contents management, public library, current state analysis

* 본 연구는 한성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 과제임.

** 한성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대학원 박사과정, 서초구립 반포도서관 차장(scliker@gmail.com) (제1저자)

*** 한성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대학원 박사과정, 성북구립 달빛마루도서관 관장(jbrlove@sbculture.or.kr) (공동저자)

**** 한성대학교 크리에이티브인문학부 교수(egseo@hansung.ac.kr) (교신저자)

■ 논문접수일자: 2023년 11월 15일 ■ 최초심사일자: 2023년 12월 6일 ■ 게재확정일자: 2023년 12월 10일

■ 정보관리학회지, 40(4), 123-145, 2023. <http://dx.doi.org/10.3743/KOSIM.2023.40.4.123>

© Copyright © 2023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코로나19의 팬데믹이 한창이었던 2020년 12월, 미국도서관협회(American Library Association, 이하 ALA)의 공동 디지털콘텐츠 실무 그룹(Joint Digital Content Working Group)이 발표한 “변화의 필요성(The Need for Change)”이라는 입장문에서 도서관은 디지털콘텐츠와 서비스에 대한 엄청난 수요에 직면했다고 밝히고 도서관에서의 디지털콘텐츠 생성과 새로운 소통 미디어의 필요성 및 중요성이 강조될 것이라 하였다(ALA, 2020). 우리나라의 도서관도 코로나19 감염 대응 방침에 따라 폐관, 개관, 부분 개관을 반복하였고, 팬데믹 현황에 발맞추어 서비스 정도를 일상적, 일부, 최소로 나누는 등 대면 서비스에 제약을 두었다. 그러나 그 이면에서, 특히 공공도서관은 비대면 온라인서비스를 강화하였고 시민들과 기존의 방식과는 다르게 소통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즉, 공공도서관은 기존에 제공하고 있던 온라인자료(전자책, 전자잡지, 디지털 자료 등)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더 많은 온라인자료를 구입하였고, 구입된 온라인자료를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서비스 플랫폼을 확장·구축하였다. 또한, 오프라인으로 진행되었던 각종 프로그램을 유튜브, 줌, 구글 미트, 웹엑스 등과 같은 화상 플랫폼으로 이용자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와 관련하여 생성된 온라인콘텐츠는 홈페이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을 통해 안내되었다. 더 나아가서 도

서관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하여 가상공간에서 이용자들이 서로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환경도 제공하였다. 이로써, 코로나19 시대에 발생한 여러 과제를 극복하는 데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며, 지역사회의 필수적인 자산이 바로 공공도서관임을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알렸다(Negron, 2022).

2023년 5월에 WHO가 팬데믹 선언을 종료한 후에도 공공도서관은 팬데믹 시기에 제공되었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고, 여전히 다양한 디지털 자료들을 구입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공공도서관은 자체적으로 디지털 콘텐츠를 생성하고 있다. 지금은 코로나19의 파급력은 주변부로 밀려난 듯하지만, 디지털 전환에 대한 가속화는 ‘온라인’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중심부에 더 강력히 남아있는 실정이다. 매년 실시하는 국가도서관 통계에서는 이전까지 없었던 공공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온라인’ 부분을 2020년부터 추가 지표로 지정하여 2021년 공공도서관 ‘온라인 프로그램’ 강좌 수가 13,143건으로 전년 대비 119.7% 증가되는 현상을 보였다(문화체육관광부, 2022). 영국의 민간 싱크탱크 네스타(Nesta)는 팬데믹이 한창인 2020년에 ‘포스트 팬데믹이 되어도 과거의 노멀로 돌아가지 못하는 현상’을 예측하였는데(Nesta, 2020), 현재 공공도서관의 온라인콘텐츠 서비스 분야는 뉴노멀 현상을 겪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공공도서관이 제작한 온라인콘텐츠는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오프라인 서비스의 대체재로 도서관 서비스의 중심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포스트 팬데믹 시기인 현재에, 도서관에서도 뉴노멀이 당연하게 받아들

여지는 현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가라는 의문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현재까지 팬데믹 시기에 활성화된 공공도서관 온라인콘텐츠의 현황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사서들의 인식을 분석한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공공도서관에서 제작하는 콘텐츠의 유형과 형태는 무엇이고 누가 주로 생산하는가?’, ‘생산된 콘텐츠를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고 있는가?’, ‘콘텐츠 생산 및 관리에 발생하는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와 같은 질문에 대한 조사 분석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는 도서관에서 온라인으로 소통하거나 프로그램을 서비스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제작한 콘텐츠를 온라인콘텐츠라고 조작적 정의를 내린 다음, 공공도서관의 온라인콘텐츠가 코로나19 팬데믹 동안에 도서관 오프라인 서비스의 대체재로서 역할이 한시적이었는지 아니면 뉴노멀인 현재에도 지속 가능한 대체재로 유지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는 온라인콘텐츠의 관리현황 및 온라인콘텐츠의 발전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앞으로의 온라인콘텐츠를 활성화하고 관리를 체계화할 수 있는 방법적 토대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온라인콘텐츠의 정의

2000년대에 들어서서 디지털시대가 대두됨에 따라 ‘콘텐츠’라는 용어는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었다. 특히 2002년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산업 발전법’이 제정되고, 2005년에는 ‘웹콘텐츠 접근성 지침1.0’이라는 국가 표준이 제정되면서 콘텐츠라는 용어는 보편화되기 시

작하였다. 일찍이 박시한, 한미정(2007)은 콘텐츠는 문자, 소리, 영상 등의 형태로 이루어진 정보의 내용물을 지칭하는 것이지만, 유통(전달) 형태에 따라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구분된다고 하며 오프라인콘텐츠(출판물)와 온라인콘텐츠를 명시적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황서이, 박정배, 김문기(2020)는 콘텐츠는 ‘내용’을 의미하므로 이를 담아내고 다중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형식’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디지털콘텐츠는 디지털 매체에 담겨진 콘텐츠를 지칭한다고 하였다. 최근 2023년에 개정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법률 제19592호)과 2022년에 개정된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법률 제31826호)에서는 콘텐츠를 ‘부호, 문자, 도형, 색채, 음성,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정보’로 간주하고 있으며, 콘텐츠의 이용 및 보존에 있어서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전자적 형태로 제작 또는 처리된 것을 디지털콘텐츠로 지칭하고 있다.

다만, 1990년대부터 네트워크를 통하여 디지털자료를 이용자에게 제공해온 도서관은 온라인상에서 디지털자료를 제공하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러한 자료들을 일찍이 온라인자료로 불러왔다. 즉 2000년대 초반까지도 대다수 도서관이나 학자들은 온라인자료를 도서관이 계약하거나 구입한 전자책이나 오디오북, 사이버학습자료 등을 총칭하는 용어로 사용했지만(남영준, 최성은, 2011; 신은주, 2005; 양승의, 2010; 이정혜, 2011), 최근 들어서는 이러한 자료를 디지털 자원으로 간주하여 콘텐츠나 디지털콘텐츠로 부르기 시작하였다(곽철완, 2015; 노영희, 강필수, 김윤정, 2021; 서은

경, 2016). 이처럼 도서관에서는 외부에서 구입하거나 자체 제작하여 이용자에게 서비스하는 모든 형태의 전자자료를 '온라인자료', 또는 '콘텐츠'나 '디지털콘텐츠'로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외부에서 제작되어 서비스 권한이 도서관이 아닌 생산기관에 있는 디지털자원과 도서관 자체제작 디지털자원을 각각 분리하여 다른 이름으로 부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는 자체제작 콘텐츠의 역할과 관리가 외부 제작 콘텐츠와 다르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도서관에서 온라인으로 정보 및 프로그램을 서비스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제작한 콘텐츠를 '온라인콘텐츠'로 정의한 다음, 이러한 콘텐츠 즉, 공공도서관에서 제작된 온라인 콘텐츠에 국한하여 생산 및 관리 실태를 분석하였다.

1.3 선행연구 분석

본 연구는 도서관에서 온라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용자와 온라인으로 소통하기 위하여 자체 제작된 온라인콘텐츠만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온라인자료나 도서관 콘텐츠와 관련된 연구는 2000년대 초반부터 다양한 측면에서, 즉 콘텐츠의 구입 및 접근 효율화, 콘텐츠의 관리와 보존, 콘텐츠 서비스 만족도 분석, 새로운 콘텐츠 유형 소개 등에서 진행되어왔으나 본 연구 주제인 공공도서관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한 온라인콘텐츠를 중심으로 분석한 논문은 많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정의한 온라인콘텐츠를 국한하여 분석한 논문은 다음과 같다.

Feltner-Reichert, Garrett, Phillips(2009)는 지역도서관이 수집한 편지, 사진, 일기 등을 기반으로 독특한 지역 콘텐츠를 생산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음을 밝혔고, 이들은 도서관에서 제작된 콘텐츠가 도서관의 전통적인 검색 채널을 통해서 검색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용자의 목적에 적합한 콘텐츠가 검색될 수 있도록 메타데이터 포맷을 적용하여 보존하고 콘텐츠를 공유하라고 주장하였다. Conrad(2017)는 공공도서관에서 생성되는 온라인콘텐츠로, Los Gatos 공공도서관의 디지털 시집과 e-북 활용 교육프로그램, Alice Springs 공공도서관의 지역 사회 특화 콘텐츠, BiblioTech Digital Library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와 요리법 등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공공도서관의 디지털 출판 활동을 제시하였다. 그는 발전된 기술을 활용하여 도서관이 스스로 지역문화 콘텐츠를 생산하여 지역 사람들과 다양하게 소통하는 것이 소외된 지역민을 도서관에 참여하게 하는 방법이고 이러한 자체제작 콘텐츠 제공은 커뮤니티와의 새로운 방식에서의 소통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King(2018)은 도서관의 마케팅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도서관의 비디오 제작을 권고하면서, 도서관에서 제작하고 있는 콘텐츠의 종류로 트레일러, 뉴스, 인터뷰, 스토리타임, 도서리뷰, 비하인드, 생중계 녹화 콘텐츠 등을 들었다. King은 동영상 제작하기 위해서 사서들이 새로운 기술을 배워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이용자와 도서관을 연결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콘텐츠를 제작할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였고 동영상 생산 매뉴얼도 제시하였다.

한편, 국내에서는 도서관의 웹진 출판이나 소

설 네트워크 서비스를 위하여 제작된 콘텐츠를 분석한 연구가 있었다. 노동조와 민숙희(2010)는 국내 4년제 대학도서관에서 제작되고 있는 웹진의 구성과 콘텐츠의 내용을 비교·분석하였다. 웹진에는 도서관 공지 및 소식, 학술 DB 활용, 신착도서, 추천도서, 정보 활용, 서평, 도서관 이용 팁(tip), 테마/특집, 서비스 정보, 쿼즈, 한마디(칼럼), 행사/이벤트 등과 같은 12가지의 내용이 제공되고 있었고, 이 중에서 공지 및 소식을 제공하는 도서관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서비스 정보, 도서관 이용 팁, 테마/특집, 추천도서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을 밝혔다. 연구에서는 도서관이 웹진을 제작하는 이유는 도서관 홍보의 주된 도구로써 활용하기 위함을 알 수 있었다. 최연진, 정연경(2013)은 소통이 부족한 현대사회에서 스마트폰 기반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등장은 타인과의 소통에 대한 욕구를 채워주고 있다면서, 이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공공기관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주민과의 소통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용자들이 도서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로부터 얻고자 하는 기대효과는 최신 정보의 신속한 제공임을 밝히고 공공도서관 역시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이용자의 요구에 맞추어 이용자를 위해 온라인콘텐츠를 제작하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통하여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이 온라인콘텐츠의 생산과 관리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없었지만, 도서관에서 제작하는 콘텐츠의 다양화 방안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관리방식과 제공방식을 제안하는 논문들이 발표되기 시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루어

지는 온라인콘텐츠 현황분석에 관한 연구는 앞으로 온라인콘텐츠를 활성화하고 체계적 관리 방안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2. 연구방법

2.1 설문 및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온라인콘텐츠 생산 및 제공 실태와 관리 방안에 대한 담당자들의 인식을 파악하고자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조사대상은 서울과 경기지역의 공공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를 통해 표집을 실시하였다. 먼저 국가도서관 통계시스템을 이용하여 '2022년('21년 실적) 공공도서관 통계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 등록된 총 495개의 공공도서관을 일차적으로 파악하였고, 이차적으로 국가도서관 통계시스템에서 도서관의 규모를 구분하는 기준에 따라, 5,500㎡ 이상을 대형 도서관으로, 2,500㎡~5,500㎡ 미만을 중형, 그리고 나머지 2,500㎡ 미만 도서관을 소형으로 계층화하여 층화표집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495개의 공공도서관 중 대형이 58개관(11.7%)이며 중형 147개관(29.6%), 그리고 소형 도서관은 290개관(58.5%)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표집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대형과 중형 도서관은 205개관 전체를 본 연구의 설문대상으로 모두 선정하고 소형 도서관의 경우는 체계적 표집을 통해 100개관을 추출하였다.

다음으로, 선정된 총 305개관의 공공도서관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기관 대표와 담당자를 선정 후 2023년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인터넷 설문 링크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인터넷 설문조사의 응답률이 저조하여, 다시 2차적으로 2023년 7월 4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담당자 연락처가 수집된 사서들에게 직접 설문 링크를 전송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사서수는 총 140명이었고, 이들을 대상으로 공공도서관 온라인콘텐츠의 실태와 사서들의 인식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내용은 일반사항, 소속된 도서관의 온라인콘텐츠 생산 실태, 소속된 도서관의 온라인콘텐츠 관리 실태, 온라인콘텐츠 관리에 대한 인식 등이다(〈표 1〉 참조). 또한, 온라인콘텐츠라는 용어가 도서관에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선행연구에서 파악하였기 때문에, 설문응답자에게 본 연구가 제시하고 있는 온라인콘텐츠의 개념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설문지 상단에 온라인콘텐츠의 개념 및 범위 등을 명시하여 응답자의 혼동을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는 사서가 소속한 도서관 규모에 따라 응답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응

답 건수를 도서관 규모별(대, 중, 소)로 정리하여 비교·분석하여 3장에 정리하였고, 온라인콘텐츠에 대한 사서들의 인식은 소속한 도서관 규모뿐만 아니라 사서의 경력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두 가지의 측면에서 비교·분석하여 4장에 정리하였다. 특히 인식의 정도를 측정할 경우에는 소속 도서관 규모와 경력으로 나누어진 세 개의 집단을 통계적으로 그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다만, 세 집단의 규모가 서로 다르고 정규분포를 이룬다는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어서, 정규성 가정이 만족되지 않을 때 사용하는 비모수 검정법인 Kruskal-Wallis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세 집단을 비교하였다.

2.2 응답자 특징

본 설문에 응답한 140명의 사서는 2가지 이상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이 중 67명(47.9%)이 프로그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그다음으로 52명(37.1%)이 참고봉사 및 정보서비스 업무를, 49명(35%)이 홍보 및 행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답하였

〈표 1〉 설문의 구성

구분	설문내용	측정방법	문항수
일반사항	소속(도서관명), 담당분야, 경력	없음	3
온라인콘텐츠 생산 실태	온라인콘텐츠 생산, 담당부서, 담당직원 여부	가/부	3
	주요 생산형태, 생산유형, 생산자 유형, 생산 장점	우선순위	4
온라인콘텐츠 관리 실태	제공 방식, 유형별 관리 방식	복수응답	2
	등록 및 저장 방식, 유형별 관리 희망 방식	복수응답	2
	관리해야 하는 주된 이유	우선순위	1
온라인콘텐츠 생산과 관리 인식	생산 장애요인, 관리 장애요인	복수응답	2
	관리지침의 필요성, 생산량 변화 및 생산량 예측	리커트 척도	3
	서비스나 관리에 대한 기타 의견	없음	1

다. 또한, 소속 공공도서관의 규모에 따라 응답자의 분포를 조사한 결과, 대규모 소속은 26명(18.6%), 중규모 소속은 50명(35.7%), 소규모 소속은 64명(45.7%)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서울·경기 지역 공공도서관의 비율이 대형 11.7%, 중형 29.6%, 소형 58.5%이므로 응답자의 분포도 비슷하게 나타난 것으로 판명되었다. 한편, 온라인콘텐츠 생산 및 관리에 대한 인식이 경력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보고, 응답한 사서들의 경력을 세 개의 그룹으로 상, 중, 하로 구분하였다. 경력을 중심으로 보면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서는 21명(15%)이고, 5년에서 15년 사이의 경력을 가진 사서는 78명(55.7%)이며, 1년 이상에서 5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사서는 41명(29.2%)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참조).

온라인콘텐츠 생산을 담당하는 부서와 직원의 유무를 묻는 질문에서는 응답자 모두 소속 도서관에서 온라인콘텐츠를 생산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지만, 담당부서가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45명(32%), 담당직원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92명(66%)이었다. 이로써, 부서 조직도나 담당업무에는 명시되지 않고 있지만, 온라인콘텐츠 업무를 담당하는 사서의 비율이 34%가 됨을 알 수 있었다. 세부적으로 대규모 도서관일수록 부서와 담당자가 있는 비율이 높았고, 규모가 작아질수록 '부서있음' 비율이 급격히 줄어든 반면, '담당있음'에서는 중규모와 소규모 도서관에 소속한 사서들의 응답은 일정 비율을 유지하고 있었다(〈표 3〉 참조).

〈표 2〉 응답자의 일반적 사항

항목	구분	응답자수	항목	분류	구분	응답자수
주 업 무 분 야	수서	36	도서관 규모*	대	연면적 5,500㎡ 이상	26
	자료조직	17		중	연면적 2,500㎡ - 5,500㎡	50
	참고봉사/정보서비스	52		소	연면적 2,500㎡ 미만	64
	프로그램	67	경력**	상	15년 이상	21
	홍보 및 행사	49		중	5년 이상 - 15년 미만	78
	시스템/전산	10		하	1년 이상 - 5년 미만	41
	총괄운영	28				
행정	26					

* 국가도서관표준 통계 기준에 따라 공공도서관 규모를 대중소로 분류하였음.

** 공공도서관 응답자 경력을 상중하로 분류하였음.

〈표 3〉 온라인콘텐츠 담당 부서, 담당직원 유무

구분	항목	대(N=26)	중(N=50)	소(N=64)	전체(N=140)
부서	담당부서가 있다	17(65%)	15(30%)	13(20%)	45(32%)
	담당부서가 없다	9(35%)	35(70%)	51(80%)	95(68%)
직원	담당직원이 있다	21(81%)	33(66%)	38(59%)	92(66%)
	담당직원이 없다	5(19%)	17(34%)	26(41%)	48(34%)

3. 온라인콘텐츠 실태분석

3.1 온라인콘텐츠 생산 실태

3.1.1 생산형태

웹상에서 제공되는 온라인콘텐츠를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문자자료, 음성음향자료, 영상자료, 이미지자료로 구분하였지만, 실제 웹상에서 제공되는 파일의 형식은 동영상(AMV, MPEG...), 오디오(MP3, WAV, PCM...), 그리고 이미지(JPG, PDF, PNG, GIF...)로 구분된다. 그러나 낱장으로 구성된 이미지 자료와 이미지 형태지만 문자자료인 전자책과 웹진을 구분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온라인콘텐츠 생산형태를 동영상, 오디오, 이미지, 전자책, 웹진으로 구분하였다.

온라인콘텐츠 생산형태를 조사한 결과, 공공도서관에서 가장 많이 제작하는 온라인콘텐츠의 형태는 이미지 형태임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는 동영상 형태의 온라인콘텐츠였고, 웹진과 오디오 형태의 콘텐츠는 미미하게 생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책은 모든 도서관에서 생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로서는 응답자들이 속한 도서관이 온라인 출판을 시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생산형태의 도서관 규모별 순위를 분석한 결과 가중치 값은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그 순위는 같았다(〈표 4〉 참조).

3.1.2 생산유형

ALA는 도서관에서 제작하는 온라인콘텐츠의 내용별 유형으로는 안내자료, 홍보자료, 활동기록(비하인드 스토리, 인터뷰영상 등), 북트레일러, 지역문화콘텐츠, 뉴스자료, 생중계자료, 녹화자료 등으로 구분된다고 하였다(King, 2018). 이에 따라 본 연구는 ALA가 제시한 8가지의 온라인콘텐츠 유형을 기본으로 하여 소속 공공도서관이 주로 생산하여 서비스하는 유형이 무엇인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도서관 규모와 상관없이 가장 많이 생산하는 유형은 ‘홍보자료(1.47)’와 ‘안내자료(0.74)’였고, 그다음은 ‘활동기록(0.26)’과 ‘지역문화콘텐츠(0.17)’이었다. 전체적으로 유사한 결과를 보였지만, 대규모 도서관과 중·소규모 도서관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 것은 ‘생중계자료’이었다. 공공도서관은 대면 서비스가 어려운 코로나19 시기에 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 스튜디오에서 프로그램을 제작하거나 소수 정예의 인원으로 문화

〈표 4〉 온라인콘텐츠 생산형태

형태	대(N=26)			중(N=50)			소(N=64)			전체(N=140)			전체 순위
	1순위*	2순위*	가중치값**	1순위	2순위	가중치값	1순위	2순위	가중치값	1순위	2순위	가중치값	
동영상	6	11	0.88	10	22	0.84	8	33	0.77	24	66	0.81	2
오디오	0	2	0.08	3	2	0.16	0	6	0.09	3	10	0.11	4
이미지	19	5	1.65	36	11	1.66	51	7	1.70	106	23	1.69	1
전자책	0	0	0.00	0	0	0.00	0	0	0.00	0	0	0.00	5
웹진	1	4	0.23	1	12	0.28	5	13	0.36	7	29	0.31	3

* 응답수(빈도)

** 가중치값: (1순위 빈도 x 2 + 2순위 빈도 x 1)/N, 최대값=2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이를 생중계하여 콘텐츠를 이용자에게 제공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장비, 인적요소, 예산 등과 같은 인프라가 필요한데, 대규모 도서관은 이러한 인프라를 갖출 수 있는 여건이 상대적으로 높았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지역문화콘텐츠'가 8가지 유형 중 4위를 차지하였다. 공공도서관은 지역의 문화자원을 발굴하여 소개하는 등 지역문화콘텐츠를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노력을 하고 있었다(〈표 5〉 참조).

3.1.3 생산자 유형

온라인콘텐츠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디자인

(미술그래픽), 편집(언어), 코딩(컴퓨팅 기술)과 같은 문헌정보학 역량 이외에 기술적 역량이 필요하다. 따라서 도서관은 온라인콘텐츠를 생산하는 담당 직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고품질 콘텐츠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외부전문가를 활용하기도 한다. 본 연구는 고품질 온라인콘텐츠 생산을 위하여 투입되는 인적자원의 유형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온라인콘텐츠의 생산은 주로 '내부직원(1.69)'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2순위와 3순위가 '외부전문가(0.42)'와 '자원봉사자(0.39)'이지만 내부직원과 큰 차이가 있었다. 다만, 도서관 규모가 클수록 '내부직원'의 의존도 비율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표 6〉 참조).

〈표 5〉 온라인콘텐츠 생산유형

유형	대(N=26)			중(N=50)			소(N=64)			전체(N=140)			전체 순위
	1순위*	2순위*	가중치값**	1순위	2순위	가중치값	1순위	2순위	가중치값	1순위	2순위	가중치값	
안내자료	5	7	0.65	10	22	0.84	11	23	0.70	26	52	0.74	2
홍보자료	14	7	1.35	29	15	1.46	41	16	1.53	84	38	1.47	1
활동기록	0	4	0.15	2	3	0.14	3	20	0.41	5	27	0.26	3
북트레일러	1	2	0.15	3	5	0.22	2	3	0.11	6	10	0.16	5
지역문화콘텐츠	4	2	0.38	2	2	0.12	4	0	0.13	10	4	0.17	4
뉴스	0	1	0.04	1	2	0.08	1	4	0.09	2	7	0.08	7
생중계	2	0	0.15	0	2	0.04	3	0	0.09	5	2	0.09	6
녹화	0	1	0.04	1	0	0.04	0	1	0.02	1	2	0.03	8

* 응답수(빈도)

** 가중치값: (1순위 빈도 x 2 + 2순위 빈도 x 1)/N, 최대값=2

〈표 6〉 온라인콘텐츠 주요 생산자 유형

생산자	대(N=26)			중(N=50)			소(N=64)			전체(N=140)			전체 순위
	1순위*	2순위*	가중치값**	1순위	2순위	가중치값	1순위	2순위	가중치값	1순위	2순위	가중치값	
내부직원	16	6	1.46	37	8	1.64	54	9	1.83	107	23	1.69	1
프로그램 참여자	2	6	0.38	3	9	0.30	5	11	0.33	10	26	0.33	4
자원봉사자	3	5	0.42	4	16	0.48	4	11	0.30	11	32	0.39	3
지역커뮤니티	1	0	0.08	1	1	0.06	0	11	0.17	2	12	0.11	5
외부전문가	3	6	0.46	5	11	0.42	5	16	0.41	13	33	0.42	2

* 응답수(빈도)

** 가중치값: (1순위 빈도 x 2 + 2순위 빈도 x 1)/N, 최대값=2

3.1.4 생산이유

공공도서관이 온라인콘텐츠를 생산하는 이유는 대면이나 오프라인의 방식과 비교해서 다른 장점이 있을 것이라 보고, 본 연구는 사서들이 온라인콘텐츠 생산 장점을 무엇으로 보고, 어떤 점을 가장 큰 장점으로 생각하는지를 조사하였다. 공공도서관 사서들은 ‘홍보의 효과성(1.09)’, ‘정보전달의 효율성(0.76)’, ‘정보접근의 편리성(0.52)’, ‘이용자의 흥미유발성(0.45)’, 정보의 재사용성(0.17) 순으로 장점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흥미로운 점은 사서들은 생산자 측면의 장점을 이용자 측면에서의 장점보다 우선적으로 선택했다는 점이다. 소·중규모 도서관 사서들과 다르게 대규모 도서관 소속의 사서들은 온라인콘텐츠를 생산하는 장점으로, ‘정보접근의 편리성’보다는 ‘정보의 재사용성’을 높게 평가하였는데, 역시 이용자 측면보다는 생산자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표 7〉 참조).

3.2 온라인콘텐츠 제공과 관리 실태

3.2.1 제공방식

공공도서관에서 비대면 서비스를 강화함에

따라 온라인콘텐츠의 생산이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온라인콘텐츠에 대한 접근 채널도 다양해졌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이 생산한 콘텐츠를 어떤 채널을 통해 제공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도서관 규모와 상관없이 대부분 공공도서관은 ‘홈페이지(35%)’, ‘기관 계정 소셜미디어(27%)’, ‘유튜브(22%)’에서 온라인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즉, 상위 3개 채널이 84%로 압도적인 결과를 보였고, 다음으로 카카오플러스채널(7%), 문자메시지(6%), 직원 계정 소셜미디어(3%)의 이용은 미비하게 나타났다. 다만, 이용자 개개인에게 보내는 도서관 카카오플러스채널과 문자메시지를 이용하는 비율을 비교해보면, 중·소규모 도서관이 대규모 도서관보다 모바일 메시지 채널을 더 많이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중·소규모 도서관의 이용자 수가 대규모 이용자 수보다는 적어 모바일 메시지를 활용하는 방법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동영상과 생중계를 다른 규모의 도서관보다 더 많이 생산하는 대규모 도서관 역시 생중계와 동영상 제공에 강점이 있는 ‘유튜브’ 방식을 더 많이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표 8〉 참조).

〈표 7〉 규모별 온라인콘텐츠 생산이유

생산 목적	대(N=26)			중(N=50)			소(N=64)			전체(N=140)			전체 순위
	1순위*	2순위*	가중치값**	1순위	2순위	가중치값	1순위	2순위	가중치값	1순위	2순위	가중치값	
정보접근의 편리성	0	4	0.15	9	9	0.54	17	8	0.66	26	21	0.52	3
이용자의 흥미유발성	4	7	0.58	4	13	0.42	4	19	0.42	12	39	0.45	4
정보전달의 효율성	9	6	0.92	14	11	0.78	14	15	0.67	37	32	0.76	2
홍보의 효과성	11	7	1.12	20	14	1.08	25	19	1.08	56	40	1.09	1
정보의 재사용성	2	2	0.23	3	2	0.16	4	2	0.16	9	6	0.17	5

* 응답수(빈도)

** 가중치값: (1순위 빈도 x 2 + 2순위 빈도 x 1)/N, 최대값=2

〈표 8〉 규모별 온라인콘텐츠 제공방식

제공 채널(방식)	복수응답(%)				
	대(N=26)	중(N=50)	소(N=64)	전체(N=140)	전체 순위
도서관 홈페이지	19(34%)	41(33%)	55(36%)	115(35%)	1
유튜브(YouTube)	16(28%)	28(22%)	31(20%)	75(22%)	3
기관 계정 소셜미디어	15(26%)	32(26%)	45(29%)	92(27%)	2
직원 계정 소셜미디어	3(5%)	6(4%)	0	9(3%)	6
도서관 카카오플러스채널	1(2%)	11(9%)	13(9%)	25(7%)	4
문자메시지(SMS)	3(5%)	7(6%)	10(6%)	20(6%)	5
복수 응답의 총수	57(100%)	125(100%)	154(100%)	336(100%)	

3.2.2 유형별 관리방식

일반적으로 수서업무나 자체제작을 통하여 도서관에 자료가 입수되면, 도서관은 등록, 분류/목록(조직), 저장 등의 작업을 거쳐 궁극적으로 이용자가 활용할 수 있는 검색서비스를 제공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 시점에서 공공도서관이 생산된 온라인콘텐츠를 관리하고 있는지, 만약 관리하고 있다면 어떠한 수준으로 관리하는지를 조사하였다.

〈표 9〉에서 나타났듯이, 온라인콘텐츠를 생산하고 있으나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답한 사서는 약 40명으로 28% 정도임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온라인콘텐츠 유형별로 관리하지 않다고 응답한 수는 달랐다. 즉, 생중계를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사서는 61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58명이 뉴스를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비하여, 홍보자료, 활동기록, 안내자료를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사서

의 수(평균 21명)는 적었다.

다음으로, 관리한다고 응답한 사서들을 토대로 유형별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공공도서관은 온라인콘텐츠를 관리하는 방식 중 '저장'과 '등록'을 가장 많이 하고 있지만, '분류'와 '목록(조직)' 작업을 거의 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조직' 작업이 수반되지 않는 저장은 이용자에게 서비스하기 위한 저장이라기보다는 생산 후 생산자나 부서가 등록하여 보유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대다수 공공도서관은 온라인콘텐츠를 이용자의 활용을 위한 관리가 아니라 생산자나 생산부서의 활동을 지원하는 업무자료로 취급하고 이에 대응하는 관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저장'을 많이 하는 콘텐츠 유형은 녹화자료(48.3%), 활동기록(47.4%), 생중계자료(46.7%)이었고, '조직'을 가장 많이 하는 유형으로는 지역문화콘텐츠(11.4%)임을 알 수

〈표 9〉 유형별 관리 여부

항목	응답수(%)								
	안내자료	홍보자료	활동기록	북트레일러	지역문화콘텐츠	뉴스	생중계	녹화	평균
관리함	119(89%)	127(93.4%)	112(84.6)	93(71.5%)	98(72.9%)	82(64.4%)	79(60.1%)	94(71.6%)	100.5(71.8%)
관리안함	21(11%)	13(6.6%)	28(15.4%)	47(28.5%)	42(23.1%)	58(35.6%)	61(39.9%)	46(28.4%)	39.5(28.2%)

있었다. 또, 저장과 등록을 비슷하게 하는 유형은 안내자료와 홍보자료이고, 저장과 등록하는 비율에 비하여 검색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유형은 활동기록(18.2%)으로 나타났다(〈표 10〉 참조).

3.2.3 등록 및 저장 방식

공공도서관이 온라인콘텐츠를 관리하기 위하여 가장 많이 실행하고 있는 등록과 저장을 실제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표 11〉에 나타났듯이, 온라인콘텐츠 등록은 게시판 및 공지사항 등에 탑재하는 ‘홈페이지 등록(38%)’을 가장 많이 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는 온라인 외부 플랫폼을 활용한 클라우드 등록 방식인 ‘플랫폼 등록(33%)’, 워드프로세스나 엑셀 등 표의 형태로 관리하는 ‘리스트 등록(15%)’, 도서관 자료관리 시스템에 정식으로 입력하는 ‘시스템 등록(10%)’ 순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만, 대규모 도서관은 ‘플랫폼 등록’ 방식을, 중규모 도서관은 ‘플랫폼 등

〈표 10〉 유형별 관리방식 분포

항목	복수응답(%)							
	안내자료 (N=119)	홍보자료 (N=127)	활동기록 (N=112)	북트레일러 (N=93)	지역문화 콘텐츠 (N=98)	뉴스 (N=82)	생중계 (N=79)	녹화 (N=94)
등록	58(34.1%)	63(34.2%)	40(26%)	36(30.5%)	41(29.3%)	32(30.5%)	33(35.9%)	38(32.8%)
저장	62(36.5%)	65(35.3%)	73(47.4%)	48(40.7%)	52(37.1%)	40(38.1%)	43(46.7%)	56(48.3%)
조직	6(3.5%)	7(3.8%)	13(8.4%)	4(3.4%)	16(11.4%)	7(6.7%)	4(4.3%)	4(3.4%)
검색	44(25.9%)	49(26.6%)	28(18.2%)	30(25.4%)	31(22.1%)	26(24.8%)	12(13.0%)	18(15.5%)
복수 응답의 총수	170	184	154	118	140	105	92	116

〈표 11〉 등록 및 저장 방식

방식		복수응답(%)				
		대(N=26)	중(N=50)	소(N=64)	전체(N=140)	전체 순위
등록	리스트 등록	6(15%)	14(17%)	12(14%)	32(15%)	3
	시스템 등록	6(15%)	9(11%)	6(7%)	21(10%)	4
	홈페이지 등록	12(30%)	28(35%)	38(44%)	78(38%)	1
	플랫폼 등록	14(35%)	28(35%)	27(31%)	69(33%)	2
	등록안함	2(5%)	2(2%)	4(4%)	8(4%)	5
	복수 응답의 총수	40(100%)	81(100%)	87(100%)	208(100%)	
저장	서버저장	9(20%)	26(27%)	22(21%)	57(23%)	2
	별도저장	10(23%)	17(18%)	28(26%)	55(22%)	3
	PC저장	12(27%)	34(35%)	38(35%)	84(34%)	1
	스크랩저장	3(7%)	7(7%)	3(3%)	13(5%)	5
	클라우드저장	7(16%)	11(12%)	14(13%)	32(13%)	4
	저장안함	3(7%)	1(1%)	2(2%)	6(3%)	6
	복수 응답의 총수	44(100%)	96(100%)	107(100%)	247(100%)	

록'과 '홈페이지 등록' 방식을, 소규모 도서관은 '홈페이지 등록' 방식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한편, 공공도서관의 온라인콘텐츠 저장 방식은 업무용 PC에 저장하는 'PC저장(34%)'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온라인콘텐츠를 도서관이나 상위기관의 내부 서버에 저장하는 '서버저장(23%)', 외장하드나 USB 등에 저장하는 '별도저장(22%)' 순으로 저장하고 있었다. 인쇄물의 형태로 저장하는 '스크랩저장'을 하고 있다는 응답 비율이 5%나 있었고, '저장하지 않고 있다'고 답한 비율도 3%로 나타났다(〈표 11〉 참조).

3.2.4 유형별 앞으로의 관리방식

현재 관리방식은 〈표 10〉에서 나타났듯이 '등록'과 '저장'수준에 머물러 있었지만, 앞으로의 관리 계획은 다들지 모른다는 전제 아래, 사

서들에게 앞으로 채택할 온라인콘텐츠 관리방식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관리하지 않는다'의 비율이 28.2%에서 7.3%으로 많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표 12〉 참조). '조직'과 '검색'이 가능하도록 관리하겠다고 응답한 수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표 13〉 참조).

특히, '앞으로 조직을 하겠다'고 응답한 사서는 318명으로 421% 증가하였고, '검색'인 경우에도 238명 응답에서 419명 응답으로 106% 정도 증가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온라인콘텐츠를 분류·목록하는 '조직' 관리업무를 수행하겠다는 비율은 가장 낮았고, '저장'과 '검색' 업무를 하겠다는 응답 비율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로써 설문에 응답한 사서들은 온라인콘텐츠의 앞으로의 관리 필요성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표 13〉 참조).

〈표 12〉 앞으로의 관리 여부

항목	응답수(%)								
	안내자료	홍보자료	활동기록	북트레일러	지역문화콘텐츠	뉴스	생중계	녹화	평균
관리함	135(97.8%)	135(97.8%)	134(97.4%)	131(96%)	136(98.4%)	118(89.2%)	122(90.7%)	127(93.7%)	129.8(92.6%)
관리안함	5(2.2%)	5(2.2%)	6(2.6%)	9(4%)	4(1.6%)	22(10.8%)	18(9.3%)	13(6.3%)	10.2(7.3%)

〈표 13〉 유형별 앞으로의 관리방식 분포

항목	복수응답(%)								
	안내자료 (N=135)	홍보자료 (N=135)	활동기록 (N=134)	북트레일러 (N=131)	지역문화콘텐츠 (N=136)	뉴스 (N=118)	생중계 (N=122)	녹화 (N=127)	
등록	50(22.6%)	47(21.2%)	48(21.1%)	42(19.6%)	48(19.5%)	35(19.3%)	37(21%)	40(20.6%)	
저장	71(32.1%)	70(31.5%)	75(32.9%)	60(28%)	65(26.4%)	51(28.2%)	63(35.8%)	71(36.6%)	
조직	29(13.1%)	41(18.5%)	47(20.6%)	40(18.7%)	61(24.8%)	40(22.1%)	29(16.5%)	31(16%)	
검색	71(32.1%)	64(28.8%)	58(25.4%)	72(33.6%)	72(29.3%)	55(30.4%)	47(26.7%)	52(26.8%)	
복수 응답의 총수	221(100%)	222(100%)	228(100%)	214(100%)	246(100%)	181(100%)	176(100%)	194(100%)	

3.2.5 관리 이유

도서관에서 디지털형태의 콘텐츠 관리는 인쇄자료 관리와는 방식면이나 절차적인 면에서 사뭇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온라인콘텐츠가 ‘정보적 활용가치’, ‘도서관 자원으로서의 가치’, ‘서비스에 대한 기록적 가치’, ‘서비스 결과의 활용가치’, ‘이용자요구를 반영한 행위적 가치’를 가진다고 보고, 사서들은 어떠한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조사하여 실제 사서들이 공공도서관에서 온라인콘텐츠를 관리하는 이유를 살펴보았다. 분석한 결과, 사서들은 소속기관의 규모와 상관없이, 온라인콘텐츠를 관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온라인콘텐츠가 도서관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0.93)’이라고 하였다. ‘도서관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제외하고, 대규모 도서관 소속의 사서들은 ‘기록적 가치’, ‘서비스 결과의 가치’, ‘정보적 활용 가치’ 순으로 그 이유를 선택한 반면, 중규모 도서관에 소속된 사서들은 ‘정보적 활용가치’와 ‘기록적 가치’, ‘서비스 결과의 가치’, ‘이용자 수요 반영 가치’ 순으로 그 이유를 선택하였다(〈표 14〉 참조).

온라인콘텐츠 관리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공공도서관은 온라인콘텐츠

를 ‘도서관 홈페이지’ 상에서 가장 많이 제공하였고, 업무용 PC에 가장 많이 저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현재 대다수 사서가 온라인콘텐츠를 단순히 본인 PC에 저장하거나 등록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앞으로는 이용자의 검색이 가능하도록 온라인콘텐츠를 조직하여 다른 디지털자료와 마찬가지로 도서관시스템 안에서 통합 검색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고, 앞으로 체계적인 관리를 계획하고 있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대다수 사서가 온라인콘텐츠를 ‘도서관 자원’으로 인식하고 그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증명해 주었다.

4. 온라인콘텐츠 인식분석

4.1 장애요인 분석

4.1.1 생산의 장애요인

도서관에서의 온라인콘텐츠 생산은 디지털시대의 이용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수행되어야 하는 업무로 간주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사서들은 생산에 어려

〈표 14〉 관리 이유

관리이유	대(N=26)			중(N=50)			소(N=64)			전체(N=140)			전체 순위
	1순위*	2순위*	가중치값**	1순위	2순위	가중치값	1순위	2순위	가중치값	1순위	2순위	가중치값	
정보적 활용가치	6	4	0.62	17	4	0.76	19	16	0.84	42	24	0.77	2
도서관 자원으로서의 가치	8	7	0.88	12	24	0.96	21	17	0.92	41	48	0.93	1
서비스에 대한 기록적 가치	5	8	0.69	15	8	0.76	14	19	0.73	34	35	0.74	3
서비스 결과의 활용가치	6	5	0.65	4	9	0.34	2	8	0.19	12	22	0.33	4
이용자 요구의 활용적 가치	1	2	0.15	2	5	0.18	8	4	0.31	11	11	0.24	5

* 응답수(빈도)

** 가중치값: (1순위 빈도 x 2 + 2순위 빈도 x 1)/N, 최대값=2

움을 겪고 있다(Osuigwe, 2020). 본 연구는 온라인콘텐츠 생산을 어렵게 만드는 이유, 즉 온라인콘텐츠 생산의 장애요인을 공공도서관의 사서에게 설문하였다. <표 15>와 같이, 사서들은 소속된 도서관의 규모와 경력과는 무관하게 '전문 인력 부재(21%)'와 '비용 부족(14%)', '인프라 제작장비 지원부족(11%)'을 가장 큰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현재 도서관에서는 이러한 콘텐츠(생산)에 대한 전문 인력이 부재한 상황이다 보니 내부직원의 개인적인 관심이나 능력에 의존해서 생산하는 실정이다"라고 피력한 사서의 의견처럼 온라인콘텐츠의 생산을 위해서는 별도의 전문 능력을 갖춘 인력이 도서관 현장에서 필요로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으로 '기관의 의지 부족(4%)'은 전체적으로 가장 낮은 10위로 나타났는데, 전문 인력 부재와 예산 부족에도 불구하고 콘텐츠 생산에 대한 도서관의 의지가 있음

을 알 수 있었다.

4.1.2 관리의 장애요인

온라인콘텐츠 관리 장애요인에서는 전체적으로 '업무 부담(42%)'이 가장 높은 순위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관리지침이나 정책부재(32%)' 순이었다. 또한, 온라인콘텐츠가 '정보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인식한 사서는 16명(7%)이었고, '따로 관리하고 보존할 만한 가치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서는 40명(17%)이었다. 또한, 15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사서들은 '관리지침이나 정책의 부재'를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경력이 그보다 적은 사서들은 '업무부담'이 가장 큰 장애요인이라고 답하였다. 중간 경력의 한 사서는 "인력과 예산이 온라인콘텐츠 생산과 관리에 절대적이므로 충분한 지원 없이 관리지침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 반면, 경력이 많은 한 사서는 "관리

<표 15> 온라인콘텐츠 생산의 장애요인

생산의 장애요인	도서관 규모			사서 경력			전체 (N=140)	전체 순위
	대 (N=26)	중 (N=50)	소 (N=64)	상 (N=21)	중 (N=78)	하 (N=41)	빈도(비율)	
기관의 의지 부족	2(3%)	3(2%)	9(5%)	2(3%)	6(3%)	6(5%)	14(4%)	10
전문 인력 부재	11(16%)	33(23%)	43(22%)	16(26%)	47(21%)	24(20%)	87(21%)	1
비용 부족(예산)	9(14%)	23(16%)	25(13%)	10(16%)	33(15%)	14(11%)	57(14%)	2
정책이나 매뉴얼의 부재	6(9%)	9(6%)	11(6%)	2(3%)	15(6%)	9(8%)	26(6%)	9
이용자 요구분석 부재	8(12%)	15(10%)	8(4%)	1(1%)	16(7%)	14(11%)	31(8%)	8
인프라(제작 장비) 지원부족	8(12%)	13(9%)	22(12%)	10(16%)	26(12%)	7(6%)	43(11%)	3
인프라(소프트웨어) 지원부족	5(8%)	9(6%)	21(11%)	8(14%)	20(9%)	7(6%)	35(9%)	6
새로운 기술에 대한 지식부족	5(8%)	15(10%)	17(8%)	5(8%)	20(9%)	12(10%)	37(9%)	5
경험 부족	6(9%)	14(9%)	14(7%)	3(5%)	19(8%)	12(10%)	34(8%)	7
개인정보 및 저작권 등의 문제	6(9%)	14(9%)	22(12%)	5(8%)	22(10%)	15(13%)	42(10%)	4
복수 응답의 총수	66 (100%)	148 (100%)	192 (100%)	62 (100%)	224 (100%)	120 (100%)	406 (100%)	

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계속 제작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말하고 있어서 사서들 간에도 여러 의견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기타의견으로 5명은 앞서 분석한 온라인콘텐츠 생산에 장애가 되는 문제점이 관리의 문제점에도 해당됨을 강조하였다(〈표 16〉 참조).

4.1.3 관리지침의 필요성

현재 온라인콘텐츠는 목적, 생산유형, 생산자, 저장 및 보존 방식, 이용자 접근방식, 서비스방식까지 관리의 과정과 방식이 다르다. 또한, 온라인이라는 기술환경의 변화에 따라 계속해서 변화하는 동적 자원이다 보니 관리적 측면에서 사서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본

연구는 사서들이 국가적으로 통용되는 온라인 콘텐츠 관리지침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리커트척도(1~5점)로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공공도서관 사서들이 인지하는 필요성 정도는 3.85로, ‘필요하다(4.0)’보다는 약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속된 도서관 규모에 따라 대(4.19), 중(3.82), 소(3.73)의 순으로 지침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경력별로는 상(4.10), 하(3.83), 중(3.79)의 순으로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대규모 소속 사서들과 경력이 15년 이상의 중견사서들은 국가적으로 통용되는 관리지침을 필요성을 다른 규모나 경력 그룹보다는 좀 더 강하게 인지하고 있었지만, 통계적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표 17〉 참조).

〈표 16〉 온라인콘텐츠 관리의 장애요인

관리의 장애요인	도서관 규모						복수응답 수(%)	
	사서 경력			전체 (N=140) 빈도(비율)	전체 순위			
	대 (N=26)	중 (N=50)	소 (N=64)			상 (N=21)	중 (N=78)	하 (N=41)
정보로서의 가치 부재	6(11%)	4(4%)	6(6%)	4(11%)	7(5%)	5(7%)	16(7%)	4
일회성으로 보존가치의 부재	12(23%)	16(18%)	12(12%)	6(16%)	24(18%)	10(15%)	40(17%)	3
업무 부담	21(40%)	36(40%)	45(46%)	12(32%)	58(42%)	32(48%)	102(42%)	1
관리 지침이나 정책 부재	14(26%)	33(37%)	31(32%)	15(41%)	44(32%)	19(29%)	78(32%)	2
기타	0	1(1%)	4(4%)	0	4(3%)	1(1%)	5(2%)	5
복수 응답의 총수	53 (100%)	90 (100%)	98 (100%)	37 (100%)	137 (100%)	67 (100%)	241 (100%)	

〈표 17〉 국가적으로 통용되는 관리지침의 필요성

구분	집단규모	N	리커트값 평균	표준편차	평균순위	카이제곱	유의확률
규모별	대	26	4.19	0.98	84.37	4.132	0.127
	중	50	3.82	0.94	68.20		
	소	64	3.73	1.12	66.66		
경력별	상	21	4.10	0.77	77.64	0.869	0.648
	중	78	3.79	1.09	68.79		
	하	41	3.83	1.07	70.09		

4.2 생산량 인식분석

4.2.1 현재 생산량

제4차 산업혁명이 강조되기 시작한 시기에 공공도서관에서는 온라인자료 수집정책, 온라인자료 서비스, 디지털 아카이브의 필요성이 공론화되기 시작되었고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에는 그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었다. 이와 함께, 공공도서관이 자체 제작한 온라인콘텐츠의 생산이 급증하였다. 이러한 현상이 팬데믹이라는 외적요인이 있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디지털시대를 맞이한 도서관의 업무변화인지 현재로는 명확하게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팬데믹 요인이 사라진 현재적 시점에서 팬데믹 때와 비교하여 생산량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사서들은 '과거와 같다(3.0)'보다는 약간 상회하는 정도의 변화(3.36)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팬데믹 시기가 막을 내려도 온라인콘텐츠의 생산이 줄지 않고 조금 더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변화의 인식이 규모별, 경력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비교분석한 결과, 경력 15년 이상의 사서들이 현재 생산량이 기존 보다 더 많이 늘어났다고 인지하고 있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세 그룹의 통계적 차이를 비교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표 18〉 참조).

4.2.2 생산량의 향후 변화

팬데믹 이후 급격하게 변한 사회적 단상은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 내는 문화적 현상을 겪게 되었고 도서관도 예외는 아니었다. 특히 공공도서관은 새로운 디지털 컬렉션과 디지털 기반 서비스의 제공을 지속적으로 요청받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앞으로 온라인콘텐츠의 생산량이 어느정도로 변화할 것인지에 대한 사서들의 생각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공공도서관 사서들은 온라인콘텐츠가 계속해서 '앞으로 증가될 것이다(4.14)'라고 인지하고 있었고, 소규모 도서관에 소속된 사서들(4.23)과 경력 15년 이상의 중견 사서(4.43)들이 '생산이 증가될 것이다'라는 예측을 가장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규모가 큰 도서관에 소속된 사서의 향후 변화값이 가장 적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대규모 도서관에서는 현재에도 온라인콘텐츠를 비교적 많이 생산하고 있기때문에 이러한 인식을 보이는 것 같다. 그러나 규모 및 경력별로 인식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표 19〉 참조).

4.3 응답자 인식분석

4.3.1 의견 분석

마지막으로 응답자들은 온라인콘텐츠에 대

〈표 18〉 코로나19 팬데믹 때와 비교한 현재 생산량의 변화

구분	집단규모	N	리커트값 평균	표준편차	평균순위	카이제곱	유의확률
규모별	대	26	3.42	1.17	72.54	0.335	0.846
	중	50	3.28	1.07	67.97		
	소	64	3.39	1.07	71.65		
경력별	상	21	3.62	1.12	80.40	2.329	0.312
	중	78	3.24	1.13	66.51		
	하	41	3.44	1.07	73.02		

〈표 19〉 온라인콘텐츠 생산량의 향후 변화

구분	집단규모	N	리커트값 평균	표준편차	평균순위	카이제곱	유의확률
규모별	대	26	4.00	1.10	65.44	1.273	0.529
	중	50	4.10	0.99	68.31		
	소	64	4.23	0.99	74.27		
경력별	상	21	4.43	0.98	83.12	2.861	0.239
	중	78	4.08	1.00	67.49		
	하	41	4.12	1.03	69.77		

〈표 20〉 온라인콘텐츠 서비스와 관리에 대한 의견

구분	내용
활성화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적 정책 필요(기록관리 프로세스, 검색·분류 기준, 메타데이터, 지원정책 등) • 전문성 제고(직원교육, 전문가, 담당직원, 전담부서, 가이드라인, 저작권교육 등) • (양질의 콘텐츠 생산자로서) 사서들의 의지 및 마인드 개선 • 국가차원의 온라인콘텐츠 플랫폼 필요(저자강연, 프로그램 등) • 운영방법에 대한 정보 공유 필요 • 피드백을 받을 수 없으므로 결과물에 대한 평가 측정 방안이 필요 • 고령층을 위한 온라인 인터페이스 고려
지침의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과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 • 관리를 위한 정책 및 시스템을 정착시킬 수 있음 • 생산된 자료의 선정 및 관리, 보존 측면에서 유익 • 온라인콘텐츠 개발 및 이용에 도움이 될 것 • 지속적인 정보제공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 자관의 특성을 반영한 가이드라인이나 지침 필요
관리의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 인력과 절대적 관계이며, 충분한 지원 없이 관리지침만으로는 한계가 있음 • 온라인콘텐츠 전담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우선순위가 되지 못할 것 • 필요하지만 어려운 일(업무부담, 필수서비스는 아님)

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의견을 제시한 응답자는 140명 중 46명이었고, ‘활성화 방법제안’, ‘관리지침의 필요성’, ‘관리의 어려움’에 대한 의견들이 대다수였다(〈표 20〉 참조). 제일 먼저, 사서들은 온라인콘텐츠 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책수립, 사서교육, 직원충원, 가이드라인 확보, 전문가양성, 매개자가 아닌 생산자로서 사서의 의지 및 마인드 개선 등이 있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Osuigwe(2020)는 사서들이 도서관에서 온라인콘텐츠 생산과 서비스 업무를 수행할 때 겪는 어려운 점 7가지로

① 역량함양을 위한 예산의 부족, ② 모기관의 무관심, ③ 제도적 지원 없이 직원에게만 그 책임을 지우는 환경, ④ 직원교육에 대한 요청 무시, ⑤ 교육시설 및 기술 인프라의 가용성 부족, ⑥ 직원교육에 필요한 숙련된 인력의 부재, ⑦ 신기술에 대한 직원들의 공포증을 제시하였는데, 설문에 답한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사서들도 이와 같은 어려운 점을 공통으로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온라인콘텐츠 관리를 위해서는 지침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다양했다. 국가적으

로 통용되는 ‘관리지침이 도서관의 역할과 가치를 제고할 수 있다는 점’, ‘관리를 위한 정책 및 시스템 정착으로 생산된 자료를 관리하기에 용이하다는 점’, ‘콘텐츠의 지속적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점’들을 지적하면서 지침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한편으로는 공공도서관에서 생산하는 온라인콘텐츠가 도서관의 특성과 생산 목적에 따라 형태, 보존가치 기준 등이 다양할 수 있으므로 세부적인 기준을 다룰 수 있는 자관의 지침 수립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특히 한 사서는 “국가적으로 통용되는 관리지침이 필요하긴 하지만 현장의 다양성을 담기 어렵다. 세부적인 지침을 만들기 어려운 국가 단계의 관리지침이 생기는 것보다는 콘텐츠를 제작하고 보존하는 주체가 기관의 성격에 맞게 관리 지침을 수립하는 것도 업무에 있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또한, 사서들은 예산, 조직, 전문인력 등이 부재한 상태에서 관련 지침을 먼저 수립하는 것이 공공도서관 정책의 우선순위가 되기 힘들다는 점을 피력하였고 특히, 도서관 프로그램을 위하여 온라인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지만, 그 이후 관리는 현실적인 업무부담 등을 들어 실제로 실행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많이 제시하였다.

4.3.2 사서들의 인식에 관한 종합적 분석

공공도서관의 사서들이 응답한 온라인콘텐츠를 생산하는데 가장 큰 장애요인은 ‘전문 인력 부재(21%)’와 ‘비용 부족(14%)’이고, 온라인콘텐츠 관리부재 요인은 ‘업무부담(42%)’과 ‘관리지침이나 정책부재(32%)’가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공공도서관 사서들은 온라인콘텐츠가 현재에도 과거에 비해 증가

하고 있으며(3.36), 앞으로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4.14)라고 예측하였다. 이러한 인식 때문인지 대다수의 사서들은 온라인콘텐츠 관리지침이 필요하다(3.85)고 답하였다. 또한, 온라인콘텐츠 특성상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사라질 수 있으므로 관리지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동의하지만, 온라인콘텐츠 제작 및 관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리방침이나 제도 보다는 예산 및 인적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대다수 사서는 온라인콘텐츠를 생산·관리·보존하는 주체인 도서관에서 생산목적과 자관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적인 지침 마련이 우선적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한편, 코로나19 팬데믹 때와 비교하여 현재 생산량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온라인콘텐츠 담당 직원이나 전문가의 부재는 생산과 관리에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부각 되었다. 아울러, 공공도서관에서의 온라인콘텐츠 생산이 앞으로도 증가할 것이며, 생산된 온라인콘텐츠가 도서관의 자원으로써 가치가 있음을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그만큼 장기적인 온라인콘텐츠에 대한 지원이나 중장기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을 전후로 온라인콘텐츠의 생성, 서비스, 가치, 활용, 보존 및 관리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온라인콘텐츠 관리 현황을 알아보고 활성화를 위한 방법적 토대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크게 온라인콘텐츠의 생산, 관리, 인식의 측면을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총

140명의 사서를 대상으로 소속 도서관 규모와 경력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팬데믹 이후에도 공공도서관은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온라인콘텐츠를 생산하고 있으며, 사서들은 공공도서관에서 생산된 온라인콘텐츠를 '도서관 자원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식하지만, 전문가적 역량의 부재와 업무부담으로 생산과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온라인콘텐츠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의 온라인콘텐츠 관리를 체계화하고 더 나아가 관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사서들은 도서관 업무활동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듯이 온라인콘텐츠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관리해야 한다. 공공도서관이 자체적으로 제작한 온라인콘텐츠는 지역사회의 요구에 따라 이용자에게 제공된 '서비스 정보자원'이며 '현용기록물'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 공공도서관은 자관의 현황을 분석한 후 자관에 적합한 온라인콘텐츠 등록 지침과 관리지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만, 기록관리와 같이 국가적으로 통용되는 규정과 지침의 가이드라인이 없는 환경에서는 관리지침을 수립하는 작업 또한 어려운 작업이므로 '장서개발정책' 등과 같은 자료관리 지침에 온라인콘텐츠에 대한 관리 사항을 추가하는 방법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온라인콘텐츠 보존 및 활용의 체계화는 앞으로 공공도서관에서 이루어야 할 중요한 업무이므로 이에 대하여 사서들은 반드시 인식하고 준비해야 할 것이다.

둘째, 온라인콘텐츠에 대한 '디지털 큐레이

터'로서의 임무를 사서들이 수행해야 할 것이다. 사서들은 앞으로 도서관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지닌 온라인콘텐츠가 더욱 많이 그리고 다양하게 생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용자가 활용하는 도서관 자원으로서의 온라인콘텐츠는 관리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업무가 수행되어야 한다. 다만, 공공도서관에서 제작한 온라인콘텐츠는 다양한 목적에 의하여 생산되기 때문에 도서관의 기존 자료와는 다른 기준과 방식으로 관리되어야 하고, 특히 온라인콘텐츠는 디지털 자료이므로 이에 적합한 방식 즉, 디지털 큐레이션 프로세스(선정, 저장, 보존, 접근/서비스 제공, 폐기)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온라인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서비스를 하는 사서는 디지털 큐레이터의 소임을 수행해야 하며 이와 관련된 업무능력을 배양해야 할 것이다.

셋째, 공공도서관이 이제 지적정보나 정보플랫폼을 제공하는 역할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생산자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음을 공공도서관의 관장을 비롯하여 공공도서관 사서들이 인지해야 할 것이다. 즉, 지금까지 공공도서관의 역할이 외부에서 이미 생산된 정보자원의 제공이었다면, 온라인콘텐츠의 등장으로 도서관이 직접 생산하고 제공자로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공공도서관이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적 환경에 적응하고 새로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 충원뿐만 아니라 온라인콘텐츠를 둘러싼 여러 가지 법적 문제로 위축되지 않도록 제도 마련과 전문 교육에 대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공공도서관이 먼저 생산자로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받아들여야 공공도서관이 필수적인 지역사회 자산임을 입

증할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격하게 증가한 온라인콘텐츠는 포스트 팬데믹 시기인 현재에도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의 온라인콘텐츠는 도서관의 자산으로 겨우 인정받는 첫 단계에 머물고 있지만, 앞으로는 다른 디지털콘텐츠와는 다르게 개별 공공도서관이 보유하고 각각 생산해서 지역주민에게 서비스하는 그 도서관만의 특화된 디지털콘텐츠 자료로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따라서 이제 온라인콘텐츠의 활성화를 위한 관심

과 노력은 공공도서관의 선택이 아닌 필수인 것이다. 이번 연구는 공공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들 대상으로 생산과 관리의 실태 현황을 중점적으로 분석한 연구이므로 실무적 관리방안에 대한 분석과 제안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공공도서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적 온라인콘텐츠 관리방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이용자와 관리자를 대상으로 온라인콘텐츠의 요구와 활용에 관한 후속적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곽철완 (2015). 공공도서관 정보화 실태 연구: 2012년과 2014년 비교.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6(2), 199-215. <https://doi.org/10.14699/kbiblia.2015.26.2.199>
- 남영준, 최성은 (2011). 대학도서관 전자책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5(1), 287-310. <http://doi.org/10.4275/KSLIS.2010.45.1.287>
- 노동조, 민숙희 (2010). 대학도서관의 웹진 발행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4(3), 241-266. <http://doi.org/10.4275/KSLIS.2010.44.3.241>
- 노영희, 강필수, 김윤정 (2021). 공공도서관 디지털자료 운영실태에 따른 디지털자료 이용 활성화 방안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38(1), 25-51. <http://doi.org/10.3743/KOSIM.2021.38.1.025>
- 문화 산업 진흥 기본 법. 법률 제19592호.
- 문화체육관광부 (2022). 2022년('21년 기준) 공공도서관 통계조사 결과보고서.
- 박시현, 한미정 (2007). 계획된 행동이론을 적용한 온라인 콘텐츠 이용행동의 이해: 대학생 집단을 중심으로. PR연구, 11(2), 195-231. <http://doi.org/10.15814/jpr.2007.11.2.195>
- 서은경 (2016). 대학도서관에서의 디지털보존 실태분석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33(1), 269-292. <https://doi.org/10.3743/KOSIM.2016.33.1.269>
- 신은주 (2005). 공공도서관에서의 e-book 서비스 이용 증진에 관한 연구: 서울시 강북지역 지자체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성대학교대학원.
- 양승의 (2010).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의 협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정혜 (2011). 특집 -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 전자도서관 운영사례. 도서관문화, 52(6), 22-27.
- 최연진, 정연경 (2013). 공공도서관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4(4), 319-340. <http://dx.doi.org/10.14699/kbiblia.2013.24.4.319>
-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법률 제31826호.
- 황서이, 박정배, 김문기 (2020). 인문콘텐츠분야 연구의 경향 분석: 토픽모델링과 의미연결망분석을 중심으로. 인문콘텐츠학회지, (56), 123-141. <http://dx.doi.org/10.18658/humancon.2020.03.123>
-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2020, December). The Need for Change: A Position Paper on E-Lending by the Joint Digital Content Working Group. Available: <https://www.ala.org/tools/sites/ala.org.tools/files/content/The-Need-for-Change-A-Position-Paper-on-E-Lending-by-the-Joint-Digital-Content-Working-Group.pdf>
- Conrad, K. M. (2017). Public libraries as publishers: critical opportunity. Journal of Electronic Publishing, 20(1). <http://doi.org/10.3998/3336451.0020.106>
- Feltner-Reichert, M., Garrett, M., & Phillips, L. L. (2009). Metadata plus: how libraries assure discovery of locally created content. ACRL Fourteenth National Conference, Seattle, Washington, 75-80.
- King, D. L. (2018). Video in libraries. Library Technology Reports,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54(7), 1-38.
- Negron, P. (2022). Redefining Public Libraries in a Post-Pandemic World: Key Resources from Urban Libraries Council. Urban Libraries Council.
- Nesta (2020, April 9). There will be no 'back to normal'. Available: <https://www.nesta.org.uk/blog/there-will-be-no-back-normal/>
- Osuigwe, N. E. (2020). Managing and Adapting Library Information Services for Future Users. Pennsylvania: Idea Group Incorporated Global.

• 국문 참고문헌에 대한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of references written in Korean)

- Choi, Yeon-Jin & Chung, Yeon-Kyoung (2013). A study n activating social network services for public libraries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4(4), 319-340. <http://dx.doi.org/10.14699/kbiblia.2013.24.4.319>
- Framework Act on the Promotion of Cultural Incustries. Law No. 19592.
- Hwang, Seo-I, Park, Jeong-Bae, & Kim, Mun-Ki (2020). An analysis of humanities contents_related studies' trends in korea: focused on topic modeling and semantic network analysis. Humanities

- Contents, (56), 123-141. <http://dx.doi.org/10.18658/humancon.2020.03.123>
- Inforcement Decree of the Content Industry Promotion Act. Act No. 31826.
- Kwak, Chul-Wan (2015). A study the informationization of public libraries: comparing 2012 with 2014.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6(2), 199-215. <http://dx.doi.org/10.14699/kbiblia.2015.26.2.199>
- Lee, Jeong-Hye (2011). Feature-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s integrated e-library. *Journal of The Library Culture*, 52(6), 22-27.
-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22). Report on the Statistical Survey of Public Libraries in 2022 (as of 2021).
- Nam, Young-Joon & Choi, Sung-Eun (2011). A study on user satisfaction of university library e-book service.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Association*, 45(1), 287-310. <http://doi.org/10.4275/KSLIS.2010.45.1.287>
- Noh, Dong-Jo & Min, Sook-Hee (2010). A study on the state of webzine publications in Korean university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4(3), 241-266. <http://doi.org/10.4275/KSLIS.2010.44.3.241>
- Noh, Youn-ghae, Kang, Pil-soo, & Kim, Yoon-jung (2021). A study on the activation of digital material using by the actual condition of digital material operation in public librar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8(1), 25-51. <http://doi.org/10.3743/KOSIM.2021.38.1.025>
- Park, Sihan & Han, Miejeong (2007). A survey on user attitudes and behavioral intention for identifying preventive campaign measures for illegal online downloading. *Journal of Public Relations*, 11(2), 195-231. <http://doi.org/10.15814/jpr.2007.11.2.195>
- Seo, Eun-kyung (2016). An analysis on digital preservation practices in academic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3(1), 269-292. <https://doi.org/10.3743/KOSIM.2016.33.1.269>
- Shin, Eunju (2005). A Study on the Use Improvement of e-book Service in Public Library: Focus on Public Libraries in the Gangbuk Area in Seoul. Master's thesis. Hansung University.
- Yang, Seung-Ui (2010). A Study on the Cooperation between Public and School Libraries.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